

사랑과 율법

| 김홍호 |

무시무시하고 동시에 매력적인 근본체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로마서 13:8~10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로 마서 13장 8절부터 이야기인데, 오늘은 <사랑과 율법>이란 말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바울 선생은 ‘사랑과 율법’이란 말도 쓰고, ‘복음과 율법’이란 말도 쓰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사랑’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과 율법’ 혹은 ‘사랑과 율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어느 정도 문제가 되냐 하면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울 정도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율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원수처럼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될까? 그런데 물론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율법 그러면 모세의 십계명,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 그러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리만큼 계명에 도취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좋아하던 그것을 원수처럼 미워하면서도 사랑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낡았다 그거지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기승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송도에 불교 절이 팔만 구 암자나 되었는데, 팔만 구 암자의 절이 섰다면 그 이상 더 말할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성계 같은 사람은 불교 때문에 망했다고 하고서 또 다른 종교인 유교를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조가 왜 망했어요. 유교 때문에 망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유교만이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무엇이든지 낡아지면 힘이 빠지는 거죠. 생명력이 없어지고 마는 거지요. 참이 없어지고 마는 거지요. 유교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허허식이 되고 아무 힘을 못 써요. 그거 맥 빠진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찾고 하는 거지요. 바울의 입장으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새 것이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거예요.

기독교는 천년이 지났어요. 또 낡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 교황이 면죄부인지 별 것을 다 팔아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반항하고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낡으면 힘이 없어져요. 뭐든지 새 것이라야 돼요. 새 것이라야 질기고, 새 것이라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새 것을 늘 찾아요. 그런데 새 것은 언제나 힘이 있는 대신 무시무시해요. 오토라는 사람은 거룩이라는 것의 속성을 무시무시한 것과 매력적인 것을 들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매력적이라는 말은 체험의 세계를 말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세계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늘 내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곳은 지리산이에요. 천황봉에 올라가면 지리산이 왜 그리도 뽀족한지 몰라요. 한마디로 무시무시해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가 지리산에 올라가서 보면 한 눈에 보여요.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가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몰라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매력적이에요. 개척이라고 해도 개척을 한다고 하면 무시무시한 게 많지 않아요? 무시무시하지만, 뭘지 앞에 미지의 세계가 열려오는 것에 대한 없는 기쁨과 매력이 있어요.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역사라는 것을 도전과 반응이라고 하는데, 도전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 아녜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매력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시무시한 것하고 매력 있는 것하고 이것이 합쳐진 것이 사는 거지, 그게 없이는 안일해지고, 해이해지고, 지루해지고, 권태로워지고, 낡아 빠지고 마는 거지요. 이 시간이라는 것도 새로운 것을 향하여 가는 거지요. 신진 대사를 하면서 가면 여기에 생의 새 맛이 있게 되는 거지요.

한자를 보면 새 ‘신新’ 자는 선 나무 옆에 도끼가 그려져 있어요. 도끼로 찍은 그 자리가 제일 새롭지 않겠어요? 옛날 어떤 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은 그의 제자들이 무엇을 물으면 아무 것도 가르치는 게 없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들어보이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의 친구가 왔는데, 선생은 없고 제자들만이 있는데, 친구가 묻기를 너희는 스승에게서 무얼 배웠느냐 하고 물으니 제자 중 하나가 손가락 하나를 들었어요. 얼마 후 스승이 돌아왔는데, 친구가 스승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 중 하나가 손가락을 이렇게 들더라’고 했어요. 스승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며 제자들을 부르고 누가 손가락을 들었냐고 물었대요. 제자 중 하나가 나오니 스승은 “어느 손가락이냐, 여기에 내밀라.” 그래서 손가락을 내밀자 감추고 있던 도끼를 들어 탁! 내리쳤어요. 제자는 잘려져 나간 손가락을 붙들고 요즘 말로 하면 병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스승이 뒤에서 “야” 하고 부르면서 옛날처럼 자기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 제자는 깨달은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매력이 있지요.

전에 대강당에서 사대 채플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해요. 그 손가락을 드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그런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무시무시하고 매력적인 그것은 자기가 체험하는 세계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이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봐야 그 무시무시하고 매력적인 것을 느껴보지, 올라가보지 않고 좋다고 그래봐야 뭐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새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읊은 한마디로 하나님 밖에는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이 가르치는 말은, 새 것이 어디 있나. 새 것은 정신에 있다고 해요. 정신 그러면 새 ‘신新’ 자와 정신의 ‘신神’ 자는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신’ 자예요. 새 것은 어디에 있나. 정신에 있

다. 그것은 로마인서 7장 6절에 보면 “정신의 새로운 것” 정신은 곧 새로운 것이에요. 개척정신 그러지만=정신이에요. 개척이 따로 있고,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새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신의 세계는 무시무시해요. 정신의 세계는 참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새 것’이지요.

요즘 현대미술을 보면 무시무시하거든요. 현대미술의 특징이 무언가 하면 3차원의 세계를 깨뜨려 버리고 2차원의 세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언제나 복음과 율법, 그런 얘기하다가 어느 틈엔가 육체적인 율법, 정신적인 복음이라고 쓰고 있어요. 바울 선생의 머릿속에는 정신적인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육체라는 것은 언제나 안일한 것을 좋아하는데 정신적이라고 하면 언제나 무시무시한 거지요.

그런데 현대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지요. 새로운 시대를 어디서 발견하나. 정신에서 발견해야죠. 그럼 낡은 시대는 무엇으로 내뱌야 될까. 육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유명한 다빈치의 ‘모나리자’란 무엇이냐, 이걸 한마디로 육체다, 혹은 3차원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무시무시한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싫증이 나죠. 라파엘도 사실주의 작가죠. 인물을 그대로 산 것처럼 그려 놓은 거지요. 그런 육체적인, 낡아빠진 데 대해서 요즘 현대 소위 말하는 새로운 피카소인가, 그의 그림을 보면 육체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단편적인, 평면적인 것뿐이지요. 화장도 현대판으로 화장한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요.

음악도 그렇지 않아요? 클래식하고 현대음악하고 보면 클래식은 육체적이죠. 현대음악은 뭐가 막 깨뜨려지고 무시무시한 정신의 세계지요.

현대화가인 칸딘스키가 자기 화방엘 들어갔는데 뭔지 환하게 빛나는 것이 있더라요. 그래서 어떤 그림인가, 누가 그림을 갖다 놓았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 자신이 말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벽에 걸어둔 것이 떨어져서 거꾸로 놓여있는 거예요. 다시 그 그림이 말이라고 알고 보니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말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3차원적인 세계를 깨뜨려 버릴까 하고는 비구상, 2차원의 세계를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원시인들의 그림을 보면 다 평면이에요. 모든 그림이 다 평면이에요. 그들의 예술 작품이란 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무시무시하고 그러면서도 매력적인 그것이 정신의 세계지요.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안일하고 지루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신세계란 무시무시한 거예요.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가서 기독교를 표현할 때 무서울 ‘외畏’ 자하고 존경한다는 ‘경敬’ 자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무시무시하고 매력적인 것이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아무래도 첫사랑이 사랑이지, 첫사랑을 떠나서는 사랑이 아니죠. 성경에도 첫사랑을 얘기하는데, 첫사랑이 뭐예요? 무시무시하고 매력적인 것이 첫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율법, 복음과 율법, 새로운 것을 지금 말했는데,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십자가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 들으면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거기에 부활이 있으니 매력이 있잖아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여기에 행복이 있고, 삶이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라는 게 참 매력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뭔가 하면, 10리

예요. 땀을 흘리며 가서 기도하고 찬미 드리고 올 때 그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제는 너무 가까워졌어요.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야 뭔가 좋지, 지리산도 만약 낮다면 안 오를 거예요.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데 그게 멋지죠.

얼마 전에 지리산에 있는 스님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 밤낮 하는 게 뭐요?' 했더니 기도를 한다는데, 무슨 기도인가 하니 '자동차 길 안 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데요. 사실 지리산에 자동차 길이 난다면 다 봤죠. 역시 땀을 흘리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게 좋지, 니체 같은 사람은 요즘 기독교가 너무 편안해져서 이게 어디 기독교 같이 됐나 하고 홍보고 있어요.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만들 어볼까. 그것 없이는 새로운 것도 없고, 정신이 드는 것도 없고, 내 속에서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무시무시한 십자가와 매력적인 부활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생명이 영위되어야지요. 그 때 우리 생이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움 속에서 얻어지는 삶이 힘 있는 삶이요, 보람 있는 삶입니다. (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전집 1권 - 사람 삶 사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클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빛 힘 숨(십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 (전5권) 세트

김홍호 저 | 사색 권 | 56,000원

『김홍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 『빛 힘 숨: 십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홍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들을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



김홍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홍호 저 | 사색 권 | 40,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 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

김흥호 선생의 마음을 밝히는 책들



주역강해 1, 2, 3

도서출판 사색 刊 / 각 권 15,000원

역경은 짐치는 책이 아니다. 우주의 원리와 인생의 윤리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은 김흥호 선생이 매주 일요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한 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글로 옮겨 정리한 것이다. 강의교재는 「원본집주 주역」(명문당)을 사용했다.

서양철학 우리 심성으로 읽기

1. 철인들의 사상 / 2. 실존들의 모습 / 3. 문학속의 철학

도서출판 사색 刊 / 각 권 12,000원

이 책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플라톤, '에티카'의 스피노자, '순수이성비판'의 칸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니체, '존재와 시간'의 하이데거 등 서양철학의 철인들과 그 사상에 관한 신학자 김흥호 선생의 작품을 모은 것이다. 서양철학을 우리의 심성으로 이해하고 읽어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원각경강해

도서출판 사색 刊 / 12,000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불경으로 알려진 원각경에 대해 김흥호 박사가 199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 동안 이화여대에서 강의한 내용을 녹취하여 편집했다. 원각경 원문을 손수 발췌 요약하여 보충설명을 하고 다른 불경 가운데서 인용한 것을 첨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부록으로 고린도서 주해가 실려 있다.



법화경강해

도서출판 사색 刊 / 15,000원

저자가 2000년 3월 부터 2000년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한 시간씩 법화경을 강의한 내용을 녹음하여 글로 옮겨 정리한 것. '서품'부터 '보현보살권발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